

민주, 이재명 수사 공세... “김대중·노무현 죽이기와 유사”

“김대중·노무현 지키려던 세력이 역사에서 승리” “검찰의 악랄하고 비열한 탄압 계속...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비열한 탄압이라 비판하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기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탄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빨갱이 딱지로 고생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겨울을 이겨내는 인동초처럼 15대 대통령이 되어 문화강국, 인터넷강국의 초석을 만들었고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의 상징이 되어 노벨상까지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련도 못지않았다. 특권과 반칙없는 상식적인 나라, 지역감정 없는 균형발전, 평화 변명을 꾀했던 노 전 대통령도 특권과 기득권층으로부터 멸시와 모멸,

조롱, 폄훼를 당했다”며 “같은 당이었던 의원들도 탄핵 찬반으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대중을 죽이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 노무현을 죽이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 중 결국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한 세력이 역사 속에서 승리했다”며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단식 중단을 요청한다. 저도 마찬가지다.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면서도 “단식 중단 요청도 중요하지만 왜(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정적 제거, 야당탄압에 어떻게 대처하고 싸울 것인가, 이게 문제”라며 “김대중, 노무현 죽이기에 그들과 똑같은 무죄 싸웠듯이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부터 무죄 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도한 윤석열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재명을 지켜내자. 민주당은 단결해 역사와 국민을 믿고, 결눈질 하지 않고 뚝뚝뚝 앞으로 가겠다. 끝내 우리 승리하자”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에는 열흘째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거머쥔 포도라인에 세우고 영양가 없는 질문으로 시간만 질질 끌며 침대축구하듯이 조사하더니 어제는 단식 13일째로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다시 불려 조사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진실을 감추려 특정 언론에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행하며 범죄자 낙인찍기를 반복했다”며 “그간 검찰은 술하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일방적 언론플레이를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비열하고 악랄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의 무도한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 대표에게 졌다”며 “약 400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안 나왔다. 그 흔한 계좌 증거 하나 없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단식투쟁 14일차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다.

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도대체 이 대표를 왜 부른건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알리바이인가”라며 “그러나 체포영장 철이유와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서선욱기자

민주 ‘전라북도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두고’ ‘독재적 발상’ 강하게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라북도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을 두고 “특정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정상 가운데서도 가장 비정상적인,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예산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삭발했

던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삭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고 강한 항의의 표시”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께서 모두 삭발을 한 이러한 사례가 아마 우리 정치사에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터무니없고,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고, 국민들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이러한 국책 사업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미리 막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번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슬비기자

“5·18은 특정 단체 전유물 아냐” 미래세대들의 외침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1차 시민대토론회

“5·18이 특정 단체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네요.”

12일 오후 5월 항쟁지 중 한 곳인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오월문제 공론화를 위해 광주시와 함께 마련한 1차 시민대토론회에서 5·18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법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나에게 5·18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명노·채은지 위원이 진행을 맡았고, 10~30대 학생과 청년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남짓 이어졌다.

5·18을 ‘살아 숨쉬는 변화의 동력’이라고 밝힌 10대 고교생은 “5·18의 자랑스러움에 비견해 긍정적 측면을 생각하기 힘들 만큼 SNS나 정치권에서 왜곡과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5·18교육과정의 부실함을 개선하고 자랑스러운 5·18을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어

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10대 고교생은 “5·18 이후 태어나 경험하지 못했지만, 민주주의에 기여한 소중한 가치는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감히 네가 뭐 안다고’ 식의 기성세대 분위기는 고쳐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5·18은 지금 여기라고 밝힌 20대 참가자는 “시·공간을 초월해 이어져오고 있는 5·18은 영원히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특정 단체에만 국한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의 20대 대학생은 “좋은 질문이 아닌 좋은 대답 만을 강요하는 문화는 지양돼야 한다”며 5월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인드’를 주문했고, 또다른 20대는 “후대에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구에 사는 30대 시민은 “5·18은 시민 모두의 자부심인데 관련 단체들 내부의 갈등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5·18이 특정 단체들의 전유물이 돼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한 30대 시민은 “사회적 자본요소가 다분한 5·18이 경제적 자본으로 이어져야 내일의 5·18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적 개념도 없어야 자유로운 전달과 상상을 막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30대들 사이에선 5·18 전문 헌법 수록 등 법제화 주문도 이어졌다.

정다는 5·18특위 위원장은 “5·18 현주소에 대한 미래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5월 문제가 지역사회를 넘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원동력으로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차 토론회는 5·18 공범3단체, 5·18 기념재단, 5·18기념행사위, 5월 시도민 대책위 등 관련 단체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월 문제’, ‘5·18기념행사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